

NEWS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무안공항 폐쇄 장기화... 광주공항 국제선 띄운다

산림병해충 예찰·진단 은힘
전남산림연, 고정조사구 설치

전남도산림연구원(원장 오득실)이 기후변화로 빨라지는 산림병해충 우화 시기를 맞아 산림병해충 예찰 및 진단 업무에 총력을 펼친다.

최근 기후변화로 돌발 해충은 물론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등의 활동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산림병해충 발생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산림병해충 예찰(예비 관찰조사)은 발생 우려가 있거나 발생 지역에 대해 발생 여부, 발생 정도, 피해 상황 등을 관찰 조사하는 것이다.

효율적 예찰 추진을 위해 대상지와 우선순위, 횡수, 시기 등을 별도의 기준을 정해 현장 여건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험준한 산림지역은 드론을 이용한 항공예찰도 함께한다. 산림병해충을 초기에 발견, 정확하게 진단해 적기 방제가 이뤄지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도산림연구원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등 주요 산림병해충과 뽕나무 빗자루병, 미국원뿔나방, 양버즘나무 흰가루병, 이팝나무 녹병 등 15종에 대해 22개 시군 110개소에 고정조사구를 설치해 발생 시기와 규모 등 발생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

유아 등에 의한 산림해충과 명성지, 국립공원 등 주요 산림지역 10개소에 대한 돌발 병해충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매일 정기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한 대형 광주방문'서 계속

한 대형은 “정부와 기업의 원팀으로 경제안보 테스크포스(TF)를 작동하고 있다”며 “우리 산업이 큰 충격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민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 3일부터 수입 완성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또 핵심 자동차 부품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 발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관세 발효 4일만에 자동차 관세 긴급 대응대책을 마련해준 것에 감사를 표하고 등 대책의 신속한 이행을 요청했다. 또한, 미국과의 자동차 관세 협상에서 최소한 경쟁국과 형평성 있는 관세여건을 확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광주시, 국토교통부에 임시 취항 신청서 제출
항공기 운항노선·일정·규모·기종 등 개요 담겨

광주시는 15일 광주공항의 국제선 임시 취항을 위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당초 국토교통부가 무안공항 재개항 로드맵을 3월 중 발표하기로 한데 따라 그 내용을 보고 국제선 임시취항 신청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무안공항의 폐쇄기간이 7월까지 3개월간 재연장되고 로드맵 발표도 지연됨에 따라 이날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무안공항 장기 폐쇄에 따른 대체 공항으로서 시민 항공수요 충족은 물론 지역 관광업계 생존권 위협 해소를 위한

필요성 등에 따른 것이다.

신청서에는 이 같은 추진배경과 함께 항공기 운항노선, 운항일정, 운항규모, 항공기 기종 등 운항개요가 담겨있다.

운항일정은 2025년 하반기부터 무안국제공항이 정상화될 때까지다.

운항노선은 광주~울란바토르(몽골), 광주~나트랑(베트남), 광주~다낭(베트남), 광주~엔지(중국), 광주~장자제(중국) 등 노선이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운항 가능 시간은 국내선 운항시간을 고려해 아침과 저녁

각 출발 1편, 도착 1편으로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가 국제선 임시취항을 요구하는 사전협의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검역, 세관, 출입국 관리(CIQ) 등에 관한 협의기간을 거쳐 항공안전 확보 가능 여부와 공항 운영 적정성을 판단해 광주시에 국제선 임시 운항 허가 기준 부합 여부를 회신하게 된다.

광주시는 국토부가 취항 허가 승인을 해주면 CIQ(세관·출입국·검역) 시설, 국제선 관제라인 등 시설 정비 후 항공사와

함께 국토부에 항공 운항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영선 통합공항교통국장은 “시민 불편과 지역 관광업계 어려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 사전협의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조속한 승인과 운항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신청서 제출 이후 국토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부 10조→12조대 추경안 편성

민주 “15조원까지 증액”·국힘 “지체할 시간 없어”

정부가 당초 발표보다 2조원 증액한 규모로 총 12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국회, 언론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필수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대응에 3조여원,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4조여원,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에 4조여원을 각각 투

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여결원 및 각 상임위별 심사 일정을 고려하면 이르면 5월초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원내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조원 가량 추가 증액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양당 입장차가 있기는 하지만 추경 편성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서 조만간 국회 심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고1부터 수능 9월 모의평가 8월에 시행

교육부 일정 변경안 발표

하기로 했다.

상반기 모의평가는 기존처럼 6월에 실시한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3학년이 돼 치르게 될 2027년 수능 하반기 모의평가는 9월이 아닌 8월에 시행된다.

2028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일정도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이 통지되고 나서인 9월 중순 이후로 약간 늦춰진다.

학생들이 수시 원서접수를 할 때 하반기 모의평가 성적을 확인한 뒤 충분히 고민하고서 대입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8학년도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 일정 변경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년부터 하반기 수능 모의평가를 8월 넷째 주 또는 다섯째 주에 시행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8월 모의평가 성적 통지 시점에 ‘공공 대입상담’을 폭넓게 제공해 사교육 입시 컨설팅에 대한 의존 없이도 입시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화순 적벽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을 위한 상수원관리규칙 개정과 관련해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15일 화순 적벽 일원을 방문한 가운데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관련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김영록 지사,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건의

환경부에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도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화순 적벽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을 만나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광양만권 탄소중립 에너지·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환경 현안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내용은 수계관리기금 주민지원 사업 확대, 동북권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승격,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등이다.

김영록 지사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을 위한 수계관리기금 활용 주민지원사업 비율이 11.6%에 불과해 주민이 원하는 추가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으

므로 주민지원사업비율 11.6%에서 24%로 확대하고, 지방하천인 동북천의 체계적 물 관리 추진을 위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온실가스를 다배출 화학·철강산업이 집중된 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에너지·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융복합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총사업비 5000억원 규모의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연구단지’ 조성 필요성을 설명하고, 우선 타당성 조사용역비 5억원을 요청했다.

이밖에 화순 동북면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적벽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

황을 둘러보고, 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한 규제개선 건의사항도 전달했다.

이에 김완섭 장관은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 탄소중립 필요성 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며 “전남도 건의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지원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김영록 지사는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지원 확대와 온실가스 다배출 지역인 광양만권의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을 위한 국립 탄소중립 융복합 실증단지 조성 등을 위해 환경부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영남대학교
대학원·세종대
대학원

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NAC@S

중합광고솔루션 - 나코스(유) 상무지구 구름다리 옆

062) **376-5425**

나코스